

보도시점 2024. 12. 10.(화) 11:00
< 12.11(수) 조간 >

배포 2024. 12. 10.(화)

정부-지자체-발전5사,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최

-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논의 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발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와 12월 10일(화) 14시 석탄회관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는 태안화력 1호기(‘25.12월) 등 석탄발전의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고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가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로, 정부에서는 산업부·탄녹위·고용부가 참석하였고, 지자체에서는 2030년까지 전환예정인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의 대표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보령시장, 태안군수, 하동군수, 당진시 부시장, 고성군 부군수와 발전5사 사장단이 참석하였다.

*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11월 산업부-발전5사 신임사장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석탄발전 전환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정부·지자체·발전5사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석탄발전 인프라의 적절한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일자리 영향 최소화”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남호 2차관은 “석탄발전은 그간 국가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고 단계적 전환이 요구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지자체·발전5사가 지혜를 모아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가영 (044-203-3887)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2.10(화), 14:00~15:30 / 석탄회관 대회의실(4F)

□ (참석자) 정부, 지자체, 발전공기업 등

- (정부) ^{산업부} 2차관, 전력정책관, ^{탄독위}에너지전환국장, ^{고용부}노동시장정책관
- (지자체) 충남 정무부지사, 보령시장, 태안군수, 하동군수, 당진시 부시장, 고성군 부군수
- (발전공기업) 발전5사 CEO

□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4:00~14:02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2~14:05	3' · 모두발언	2차관
14:05~14:15	10' · 지역경제 영향 주요연구 소개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
14:15~14:45	30' · 기관별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석탄발전 인프라 재활용 계획 발표	탄독위, 고용부, 발전5사
14:45~15:25	40' · 토의	참석자 전체
15:25~15:30	5' · 마무리발언	2차관

※ 모두발언까지 공개